

인재 키워 밝은 미래 연다

13일 '불교인재개발원' 설립이 기폭제
교계 곳곳 인재육성 움직임...전망 밝아
체계적 지속 관리로 발굴·양성해야

지난 5·31 지방선거 결과 16명 광역단체장 중 불자 단체장은 강원, 전남, 대전, 제주 등 4명(25%), 230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불자는 22명(9%)이었다.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제17대 국회의원 299명의 종교별 분포를 보면 개신교 103명(34.5%), 가톨릭 70명(23.5%), 불교 34명(11.4%)로, 불자 국회의원 수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정계뿐 아니라 여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종교인구 분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야 할까? 여기에는 종단의 종적 부재, 종단 및 사찰에서의 활동 영역 전문화 및 세분화 미흡, 관련 분야 교육 및 연구수기관 부재, 스님 및 신도들의 무관심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교계 주요 종단들은 최근에서

야 승가 인력 양성 시스템을 정착시켰으며, 다수의 종단은 승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사찰 운영 또한 수행, 교육, 포교, 조지, 복지 등의 활동으로 분화되지 못해 전문 인력이 활동할 장이 부족하다. 하지만 최근 불교인재개발을 위한 움직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전남도지사은 7월 13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설립대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 박윤촌 전 환경처 장관, 이해봉 국회정각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불교인재개발원 설립에 무게감을 실어줬다. 불교인재개발원은 사회 각종 여론을 주도할 오피니언리더 그룹 3000명을 육성하고, 광역 및 기초단체별로 불자 조직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도 불교환경운동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환경·생태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5~6명을 매년 선발해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한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들의 현장인턴활동과 해외 NGO현장 연수, 비상근 실무팀 참여 등의 방법으로 불교환경운동에 결합시킬 계획이다.

한마음선원(선원장 대행)은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모범적인 단체로 꼽힌다. 한마음선원은 산하에 한마음과학원과 한마음국제문화원을 설치해 전문지식인들을 육성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교육 및 연구기관인 한마음과학원의 경우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 프로그램을 교사들이 각 학교에 돌아가서 적용한 뒤 그 경험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일선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연월 법흥사주지 도완은 지역의 중천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법흥사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들이 지역의 핵심으

로 성장하기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교인재화'하는데 노력을 쏟고 있다.

이들 단체 및 사찰과 같은 노력이 불교계 곳곳에 퍼져나가야 불교인재발굴과 양성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불교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사회활동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하며,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을 한층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인재를 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결집시켜 '지역 인재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유도해야 불교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에대한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이 외에도 '맑고 향기롭게' 등 사회운동 차원에서 일반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낸 슬로건과 실천 목록도 필요하다. 불교인재개발원장 김우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종교 발전은 인재 자원의 육성과 직결돼 있다"며 "얼마나 유능하고 지도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느냐가 종교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명우·남동우 기자



성보문화재 635점 불교중앙박물관으로

12월 개관... 동국대 등이 위탁관리해온 것

빠르면 12월 중 개관할 것으로 보이는 불교중앙박물관에 성보 문화재가 속속 돌아오고 있다.

조계종은 7월 11~13일 동국대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탁·관리해 오던 불교문화재 67건 635점을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옮겼다. 이번엔 동국대 박물관에서 옮겨진 불교문화재에는 <석지원류> 212점을 비롯해 불암사 경관 379점, 봉은사 청동 향로(국보 321호), 광덕사 고려사경(보물390호), 마곡사에서 소장했던 불화 17점 등 국·보물급 문화재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된 유물은 수종사 부도·5층석탑

출토유물인 불감, 삼존불상, 금동불 등 유물 24점과 은제도금육각각, 금동 9층탑, 수정제사유리병, 수정제사리탑과편, 청자유계호, 사리등 19점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7월 11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회의실에서 불교중앙박물관 공사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선임 감정인의 감정절차가 끝나면 8월 중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며 "현재 법원에 제출된 감정보고서가 통과되면 7월 중 박물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공개 입찰공사에 박차를 가해 12월 중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이제 본집으로 왔습니다"
7월 13일 동국대박물관에서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조심스럽게 옮겨지고 있는 성보문화재들. 사진=박재완 기자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일 월은 스님 서울 보문사 주지



시방세계 9면 전주 서원노인복지관



도반의 향기 17면 도봉장애인단체 연이달서씨

불교계 국제행사 현주소 4면 일산 여름휴가법 19면

'탁' 초심 잃지 마세요

지관 원장, 불자 지자체장 25명에 죽비 선출



7월 12일, 민선 3기에 이어 4기 종로구청장으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김충용 구청장 앞으로 종이 상자 하나가 배달됐다. 상자를 열어본 김 구청장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만큼 감격스런 표정을 짓는다.

김 구청장이 소중하게 꺼내든 '물건'은 바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보낸 '죽비' (사진)였다. 김 구청장은 죽비를 한참 내려

다보더니 죽비로 손을 한번 내리쳤다. 신심 깊은 불자인 김 구청장은 "지관 스님이 보내주시는 죽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며 "죽비소리에 맞춰 대중을 통솔하듯 흐트러짐 없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지관 스님은 "스스로를 경계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바로 헤아릴 것을 당부"하는 의미로 죽비를 제 4기 불자 지방자치단체장 25명에

게 7월 10일 발송했다.

11일 이를 받은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은 "늘 죽비를 보면서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발심을 잃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연소 불자 광역단체장인 박성호 대전시장도 "죽비소리를 시민들의 경책이라 생각하고 항상 귀를 열어두는 시장이 되겠다"며 "죽비를 곁에 두고 150만 대전시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음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죽비는 중국의 선원에서 유래되어 널리 보급된 것으로 선가(禪家)에서 참선 수행자를 지도할 때 사용하는 불구다. 말 대신 종자의 신호로 좌선을 시작할 때나 방선, 공양 때에도 죽비 소리에 따라 행동을 통일한다.

지관 스님은 죽비와 함께 동봉한 편지에서 "스스로를 경계하여

다스리며 국민들 어려움을 바로 헤아려 공직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지관 스님으로부터 죽비를 받은 불자 지방자치단체장은 박성호 대전광역시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김태환 제주지사, (서울) 김충용 종로구청장, 김효걸 관악구청장, 이훈구 양천구청장, 박성중 서초구청장, (부산) 박국제 서구청장, 윤덕진 사상구청장, 어윤태 영도구청장, (대구) 임병현 남구청장, (인천) 이영수 남구청장, (울산) 조용수 중구청장, 최용수 동두천시장, 이진호 양양군수, 노승철 홍천군수, 한창희 충주시장, 박희현 남해군수, 김휘동 안동시장, 김수남 예천군수, 이태근 고령군수, 황철곤 마산시장, 김한걸 거제시장, 이재근 산청군수 등 25명이다.

조용수 기자

달마의 氣

외출과 여행이 잦아지는 노출의 계절 여름! 그만큼 갖가지 나쁜 기운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제 달마의 기로 자칫 닦쳐올지 모를 나쁜 기운을 미리 예방하세요!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

행운충진

대리점 및 총판모집 1588-3278

무점포, 소자본으로 고소득 사업하실 분을 모읍니다.

• 제조원 : 名家인터내셔널 • 판매원 : (주)S.H상사

예부터 병귀(病鬼)와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달마 수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달마의 기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걸이와 귀고리, 핸드폰 고리를 몸에 지니는 순간 행운이 찾아옵니다.

(주)S.H상사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410호

www.shmall.net
2006 베스트브랜드 인기상품!

名家인터내셔널

고객상담전화 1588-3278

호국불교효예중 법진스님의 어려움당 스님들께서 추천한 인기 상품!!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달마의 氣 14K를 구입하시는 모든분들께 백팔달마그림 1점을 드립니다.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 (목걸이줄은 별매)